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주) **문화방송**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요

1. 회의개최

- 일 시 : 2019년 10월 25일(금)
- 장 소 : 서면회의 및 워크샵
- 방송사 답변 :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권석 예능본부장, 안혜란 라디오본부장, 장재훈 드라마본부부국장, 박성제 보도국장, 박상권 통일협력사업팀장, 허진호 콘텐츠협력2부장, 윤미현 시청자심의국장
- 시청자위원 의견제시
 - 이규정 위원장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전경란 부위원장 /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교수
 - 김수정 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편집위원
 - 박성현 위원 /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 박진수 위원 / (주)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단법인 점프 신사업팀장
 - 오수원 위원 /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
 - 윤여진 위원 / (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이상길 위원 /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예술융합학부 교수
 - 정석희 위원 / 방송칼럼니스트
 - 홍성재 위원 /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

2. 의견제시, 시정요구

구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보도 보도제작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교양	<MBC스페셜>, <PD수첩>, <겨레말모이>
	예능·오락 스포츠	<어쩌다 발견한 하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예능을 중심으로 방송전반에 대한 세대 간 소통에 관한 내용'
	기타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의견제안] '주52시간 근무가 바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 시청자위원회 의견 발표 및 본부·국장단 답변 ◆

박성현 위원 :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된 2부작 다큐멘터리 <겨레말모이>(10/7, 14)는 분명한 주제의식과 다양한 구성이 돋보인 작품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남과 북,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언어의 이질화 실태와 언어·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겨레말 큰 사전’을 주목하고 있다.

제1부 ‘말의 눈물’에서는 이질적인 언어로 인해 탈북민과 중국동포들이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에서 겪는 차별을 조명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통일 후 상황’을 설정해 만든 연극을 통해 남과 북 사이의 문화적 갈등과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것은 인상적이다. 제2부 ‘다시 말이 모이다’에서는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을 취재하고, 통일된 독일에서는 언어 차이와 공존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남북한과 해외동포의 말을 동등하게 모아내는 ‘겨레말 큰 사전’의 편찬이 어떻게 주시경 선생이 시작했던 ‘말모이’(사전) 편찬 작업과 이후 간행된 ‘조선말 큰 사전’의 뒤를 이어 제2의 겨레말모이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의미 있는 주제와 알찬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은 몇몇 아쉬운 점들을 남기고 있다.

2부 14:52 근처, 최 타치야나(93세, 강제이주 당시 11세) 씨의 인터뷰 도중 제작진이 이렇게 질문한다. “할머니, 그래도 러시아 사람보다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시죠?” 인터뷰 질문을 이처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뷰이의 생각을 미리 예단하고 질문자가 자기의도대로 유도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전문적인 제작진이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질문은 인터뷰이를 당황시키고 대답하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최 타치야나 씨는 결국 질문에 정확히(또는 직설적으로) 답하지 못한 채, ‘고려사람 이니까 사랑하고 서로 생각한다, 보면 반갑다’라는 말로 에둘러서 답하고 있다. 강제이주 당시 11세, 현재 93세인 분에게는 러시아어가 고려 말보다 더 편할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과 한국어(고려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러시아 사람과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이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제작진의 판단을 미리 깔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2부 14:42 근처, 역시 최 타치야나 씨의 인터뷰 중 “북쪽에서 온 아즈바이...”에서 ‘아즈바이’를 ‘고모부의 고려 말’이라고 자막 괄호 안에 써 놓았는데, 이는 <우리말 샘>이 ‘아즈바이’를 ‘고모부’의 방언(중앙아시아)이라고 설명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즈바이’

는 (북한말에서 ‘아저씨’의 뜻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서도 더 포괄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려 말을 연구한 한 학술논문은 ‘아즈바이’가 “숙부/이모부/외숙”(각주에서 각각 “아버지의 남동생/어머니 여동생의 남편/어머니 남동생”이라고 보충 설명함)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곽충구, 「고려말의 자료와 연구」, 『인문논총』 제58집(2007), 252쪽).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29722/1/Inmun_v58_231.pdf). 1부 15:12 근처, 탈북청소년 유혁 씨의 인터뷰 중 “저는 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라는 대답이 나오고 자막에서도 이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남한에서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내용과 이 대답 후 연이어 나오는 그의 발언(‘말이 안 통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답의 맥락상 ‘중국’, ‘한국’이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로 자막을 써주는 게 시청자들에게 더 정확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부 04:40-05:15에 나오는 김이리나 씨의 인터뷰 답변에서 04:46 근처 ‘장남이 중국에서 공부 한다’는 내용은 맥락상 불필요하니 생략할 수 있지만, 05:15 근처의 답변은 ‘과한의역’이 아니라 ‘오역’이다. ‘우리는 한국에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남한과 고려인) 무척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남한의) 언어가 요구됩니다.’라는 내용이 “저희는 조금 단절되었죠. 뿌리를 잃어버렸어요.”로 번역되어 자막에 나온다. 외국어로 된 인터뷰 번역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전문성을 보였으면 한다.

이 다큐에서 중국의 ‘조선족’은 그 호칭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소비되어온 것을 경계해 ‘중국동포’로 칭하고 있는 반면, 구소련의 ‘고려인’은 그 호칭 그대로 쓰고 있다. 사실,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중국과 구소련에서 한반도(조선/고려) 출신의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중립적 용어에 불과한 것인데, ‘동포’의 포괄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라는 호칭을 언론이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려인’과의 호칭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시청자들에게 의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시청자들이 ‘고려인’이라는 호칭은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아 그대로 쓴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원래는 가치중립적인 호칭이라서 ‘조선족’을 굳이 ‘중국동포’로 바꾸어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사회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것도 이 다큐가 주목했던 ‘차별’의 맥락과 닿아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취재조건이 허락했을 경우, 고려인 관련 부분에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도 포함시켰더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다.

박상권 통일협력사업팀장 : 아쉬움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작진도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러시아 사람보다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시죠?” 최 할머니는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를 전혀 못 하는 분이십니다. 오직 부모님에게 배운 고려 말만 하실 수 있고 고려 말로 이야기할 상대가 점점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와 제작진의 대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다 보니 전체적인 상황을 전달하지 못한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온 아즈바이(고모부의 고려말)”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첨부해 주신 내용도 자막을 정리하며 검수했던 부분인데 현재 고려 말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고 여러 다른 해석이 있어서 최 할머니가 말씀하신 의미전달에 충실하다 보니 (고모부의 고려말)이라는 자막 괄호를 넣게 되었습니다. 최 할머니의 표현으로는 집안에 아버지의 누님과 결혼한 사이를 아즈바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막은 의미 전달을 위해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탈북청소년 유혁의 인터뷰 내용은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의미합니다. 굶주림에 탈북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다고 합니다. 남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남조선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라서 자막을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조금 단절되었죠. 뿌리를 잃어버렸어요.”라는 자막은 개별번역 검수한 것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역한 것입니다. 고려인들이 한 문장에 여러 국가의 언어를 혼용하여 말하는 점 때문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개별 언어로 번역 검수를 하다 보니 정리가 되지 않는 문장이 많아 최종 검수를 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통해 진행했으나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중국동포’라는 호칭에 대해 검토해주신 것처럼 가치중립적인 호칭에 차별을 느껴야 하는 사회적 문제는 저희도 아쉽습니다. 새터민, 탈북민, 조선족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는 취재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취재에 대해 1930년대의 우리말의 암흑기와는 대조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우리말을 잘 성장시켜왔다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고려인의 또 다른 아픔, 그리고 재일 동포의 겨레말까지.. 제작진도 취재과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취재에 자문을 주셨던 여러 교수님과 취재원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한글날특집 다큐 <겨레말모이>에 잘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수원 위원 : <PD수첩>(10/15) ‘CJ와 가짜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방송은 Mnet에서 방송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투표에 관한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문화콘텐츠 시장의 독점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CJ의 독과점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같은 방송계에 속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방송사도 이러한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청자투표로만 데뷔할 수 있는 연습생을 선발한다는 기준을 공공연히 공표해 놓고 미리 선정해 둔 연습생으로 데뷔 조를 만들기 위해 시청자투표를 조작한 이번 일은 시청자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가수를 꿈꾸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이기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나 과정의 공정이란 말이 구호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나 대기업 집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CJ의 이런 행태야말로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겠지만, <PD수첩>도 후속보도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국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분야에서의 CJ의 독과점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관한 문제점도 취재하여 보도해 주기 바란다.

윤여진 위원 : <MBC스페셜>이 준비한 ‘청춘생존’ 1,2부는 청춘들의 생존기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제목에서 주는 인상은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반은 맞았지만 그 인상이 씩씩하지 않았고, 그들 나름의 활기찬 생존기를 보는 듯하여 안도감과 믿음,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청춘의 모습을 자꾸 요즘의 청년들에게 투영하려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생존하고 공감하는 방식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그들 나름의 삶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유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하며 살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부에 등장한 주인공 중 개그우먼으로의 본업이 안정적이지 못해 생

존을 위협하지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고민과 현실을 웹툰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는 청년의 삶을 보여주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웹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삶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수입원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앱테크’, 본인이 체득한 절약정보(금융정보 및 생활의 지혜)를 유튜버로 공유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모습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이기도 하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N잡리라고 칭하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생존할 수 없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청년, 그들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느껴졌지만 이미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청년들에게 일상의 삶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해외직구를 연결하는 일, 부동산 경매 물품을 조사하고 발품을 팔아가며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일, 자신의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버로서의 일 등 직장에 매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짝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더 많은 공감능력을 키우고 있었고,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인 ‘주택’과 관련한 내용이였다. 해외여행으로 도전적인 삶을 사는 부부에게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지금의 결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시작은 신혼부부가 30년 동안 먹지 않고 모아도 살 수 없다는 ‘주택마련’이 시작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은 캠핑가에 살면서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살고 있다. 한여름과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고 불안정하지만 청년은 고시원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연친화적이라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지금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주택문제, 불안정한 미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우울하게만 보이지 않았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자신들의 일을 만드는 모습, 주택마련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느끼기에 지금의 청년들이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MBC스페셜>이 역사와 정치, 경제적 문제를 많이 보여주었지만, 이번 2부작은 지금의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박진수 위원 : <PD수첩>(10/1) '장관과 표창장', 참 씩씩한 1212회였다. 쉽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전 국민이 갑론을박하는 쟁점으로 탈바꿈하였고, 공중파TV 대표 프로그램에서 한 시간 가까이 전파를 낭비하게끔 한 사실이 안타까웠다. 사실검증에 대한 <PD수첩>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이슈를 <PD수첩>에서 또 다루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진다. 시청률도 잘 나오고, 시청자들의 폭풍 찬사도 이어졌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팩트체크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보고 싶다. 논란이 되는 쟁점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고정화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보고 싶다.

같은 날, <뉴스투데이>, <뉴스데스크>(10/10)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소개되는 기사들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었다. 보도기사들 하나하나가 필요하고 중차대한 이슈들로 꼼꼼하게 취재되었으며, 결코 지나치고 싶지 않았던 소식들을 알차게 확인할 수 있어서 시청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평상시 모바일을 통해 뉴스피드를 끊임없이 접하는 상황에서 뉴스시청도 신문구독처럼 유익함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평판을 개선해 온 MBC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었다.

다만, 한 가지 매우 아쉬운 점은 역시나 경제뉴스의 비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공장 방문과 자율주행차 소식 2가지가 한 시간 남짓 동안 계속된 뉴스 시청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경제뉴스였다. 계속해서 드리는 의견이지만 정부의 자체 경제정책 평가가 맞는 건지, 아니면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분석하는 평가가 맞는 건지, 같은 경제현상을 맞이하고도 왜 이렇게 정면으로 다른 분석을 하게 되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 자기 얘기만 맞다고 주장만 하는 형국을 언론과 뉴스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러다가 경제마저도 혐오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에게 어떤 시련과 역사가 함께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뉴스의 비중에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이번 달에도 또 드리고 싶다.

'주52시간 근무가 바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계속 의견으로 드렸던 경제이슈와도 관련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일상 속 루틴을 바꾸며 소비지형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주52시간제 근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해 살펴보는 특집기획이나 기존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활용한 편성

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다양한 연령대나 직업별 근무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으며, 퇴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갈 전망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과정이 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조차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업 활력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리포트를 함께 첨부 한다(주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 스타일 조사:<https://www.20slab.org/archives/35061>).

박성제 보도국장 : <뉴스투데이> <뉴스데스크>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박 위원님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뉴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거듭해주셨는데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스데스크>의 경우 고정적인 경제뉴스 코너의 배치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했으나 결국 고정코너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이나 각종 통계수치에 관해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분석을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뉴스는 어려워서 시청자들이 싫어한다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TV뉴스에 어울리는 경제뉴스 포맷 개발과 딱딱한 개념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는 전문기자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내부논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꼼꼼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MBC스페셜> ‘청춘생존 2부작’은 고시원과 편의점으로 대변되는 요즘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인정하고, 힘을 내보자고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1부는 ‘N잡러’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청년들과, 작지만 꼼꼼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통해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을 보여주었고, 2부는 자기 집 마련이 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정도의 일이 되었다면, 차라리 주택마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의 선택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청년들을 둘러싼 단어들도 꿈이니 희망이니 낭만이니 하는 과거 청춘을 상징하던

단어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럴수록 청년들을 이해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과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사회와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킹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PD수첩> 안에서 그러한 코너를 만드는 것보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효과적이고 필요성에도 부합할 듯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시즌제 프로그램을 시도한 경험이 있어서, 가짜뉴스를 가지고 장기탐사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간단위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52시간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삶에 가져온 변화는, 다큐멘터리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수원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문제의식에도 백분 공감합니다.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더욱 심도 깊게, 지속적으로, 관심 영역에 두고 <PD수첩>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상업문화 독점자본으로서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CJ에 대해서는 후속보도를 포함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위원 : 주한일본대사관이 9월 24일부터 ‘일본과 한국의 공간선량률’을 비교해 공개하면서 일본 방사능 수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후쿠시마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고, 도쿄와 이와키시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한국이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뉴스데스크>는 주일대사관이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주일대사관의 의도와 발표 수치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가 이 사안을 단순 전달하지 않고 ‘점검’해서 수치의 정확성과 의도성을 문제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낸 것은 매우 적절했다.

‘후쿠시마와 서울 별 차이 없다?…일 ‘황당’ 홍보전’, “콘크리트 덮인 곳만 측정”…일 ‘교묘한’ 왜곡(9/26)보도를 보면 방사능 수치 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8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보도했던 [로드맨] ‘도쿄올림픽, 안전한가요?’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다. 주일대사관의 방사능 수치 공개 전략이 황당 혹은 교묘하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방사능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로드맨의 과거 화면을 조합했다라면 어땠을까 싶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일본의 환경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최근의 방사능 수

치를 비교해 보여주었다면 사안의 심각정도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태풍 오는데 자루 아무데나?…일 오염토 줄줄이 유출’(10/17) 보도를 보고나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불안이 훨씬 커졌다. 방사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가 보도를 요청 드린다.

부모인맥으로 학술논문이나 발표문의 저자가 되는 미성년 저자 실태에 대한 탐사보도를 보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에 정당하게 참여하고 기여한 미성년의 활동이라면 교육차원에서 권장해야 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검증할 수는 있을까? 대학은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에 대해 부실한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학계는 대학입시에 활용할 목적의 공저자 등재 문제가 터졌는데도 자체조사에서 선의로 해 주었다는 답변만으로 문제를 방조하고 묵인한 측면이 있다. 교신저자의 권한이면 영문 작성을 도운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가 갑자기 논문의 주저자로 표시되어도 대학원생이나 동료 연구자가 제대로 문제제기하지 않는 연구윤리의 낮부끄러운 수준이 드러났다.

미성년자 저자 실태의 문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여러 유형의 하나일 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무감각하고 부모가 곧 스펙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미래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의 독점, 노동의 편중, 성별에 따른 격차 등 기득권을 ‘상속’하는 사회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잘못으로 면박을 주고 부끄럽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잘못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가, 반복되거나 변형의 모습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하게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문제제기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탐사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박성제 보도국장 :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는 <뉴스데스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느 언론사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보도해 온 사안입니다. 지난여름부터 도쿄 특파원은 물론 5~6명의 기자를 순차적으로 일본 현지 취재를 보내 20여개의 현장리포트 를 내보냈으며, 시청자들의 호응도 상당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당부하신대로 추후에도 방사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성년 저자 논문 실태에 대한 탐사기획팀의 연속보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보도는 올 상반기에 채용한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기자'의 기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데이터 조사를 시작해 3개월에 걸쳐 4명의 기자가 추적해 온 이슈인데 마침 조국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의 자녀논문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역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의 독점, 기득권의 상속이라는 구조적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탐사기획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 MBC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를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면서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마리텔>은 지상파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일인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립한 듯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일인방송의 내용은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상파에서 편성하여 방송하는 것이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더욱 시청률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청자 의견을 개진코자 한다. <마리텔>은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작은 파트로 구성되어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 각 파트들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보여줄 시간이 부족하여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28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김소희 셰프의 '댄디 키친'은 해외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명 한국인 셰프가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함께 비엔나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요리 프로그램과 다른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처음 부분에서 김소희 셰프가 요리를 위한 재료를 쇼핑하는 동안 카메라 워크가 너무 흔들리게 촬영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효과로 보았으나 쇼핑이 끝나고 식당에서 요리를 시작할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장면들의 흔들림이 다른 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심해 지상파 정규 편성시간에 이를 시청하는 고령의 시청자들에게는 시각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김장훈의 '보이썬 코리아'는 거리에서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지의 관중이나 TV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몰입될 만큼 흥미진진하였다. 노래를 잘 부르는 기준보다는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시킨 거리의 노래 경연대회라는 점에서 독특한 프로그램 구성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지 말고 당선된 후보자들을 발표할 때까지 연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프로그램 구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중도에 전반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다

른 내용의 파트로 넘어가니 시청자들은 좀 의아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소희의 '댄디 키친'과 김장훈의 '보이쉴 코리아'가 흥분된 분위기의 연출이었다면 김구라의 '포기하지마 포기김치'와 도티의 '밉지 않은 크리에이터 컨설팅'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시청자들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구라의 '포기하지마 포기김치'에서 초대한 김치 명인 유정임 씨의 김치 담그는 과정은 상당한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먹방 크리에이터 쓰양과 농구선수 하승진이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더한 구성은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들의 분량을 추가하다 보니 정작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김치 명인 유정임 씨의 분량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티의 '밉지 않은 크리에이터 컨설팅'도 도티의 완숙한 화법의 진행과 컨설팅을 받고자 출연한 이지혜의 거친 입담의 진행이 서로 대비를 잘 이루어 전 연령층에 재미를 더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마리텔>이 전 연령층의 시청자들을 잘 아우르면서 제작되어 시청률이 제고되길 바란다.

권석 예능본부장 : <마리텔>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소희 셰프의 해외 촬영 분에서 카메라가 지나치게 흔들려서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김소희 셰프의 촬영분은 실제 김소희 셰프의 레스토랑이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방송된 총4팀이 모두 야외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김소희 셰프의 해외촬영까지 진행하다 보니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조명까지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충분한 카메라 스태프가 촬영을 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녹화가 가능한 현지 체류일정도 이틀 밖에 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담당PD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오스트리아의 이곳저곳 풍경과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문제로 인한 내부사정이 충분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해당 방송분 녹화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장훈 편 오디션에서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2부로 나뉘어 있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식의 구성물에서 중간이 잘리는 방식의 편집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중간이 잘리더라도 결정적인 타이밍을 만들어서 편집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놓았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희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4

팀이 서로 다른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차례대로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또 본방송이 1,2부로 나뉘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란 위원 : MBC 라디오가 새 단장을 했다. 새로운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세부 코너들도 새롭게 정비했다. 그 중 아침 7시~9시대 FM방송 프로그램으로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가 눈에 띈다. 케이블과 지상파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방송인이자 최근 가장 핫하다는 인기 유튜브의 출연자인 진행자의 인기에 힘입어 해당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상승까지도 기대된다. 청취자와의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코너, 뉴스기사와 이슈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 청취자 퀴즈, 고민 해결, 초대 손님과의 토크 등등 새롭게 정비된 코너들도 다양하다. 특히 이전 진행자에 비해 발성도 좋고, 쾌활한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전화인터뷰로 초대된 게스트(10/3)조차도 진행자의 언어문제를 우려할 정도로 함부로 하는 멘트는 청취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미 어느 대중문화평론가가 '막말의 외주화'라는 표현으로 이 진행자를 출연시키고 있는 MBC를 비판한 것이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 대한 우려는 방송언어의 문제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때문에 커지기도 한다. 9월30일 방송분의 경우 지하철 탑승 중인 청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를 홍보해달라고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한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핸드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전화통화는 공공예절에 어긋나므로 자제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라디오 진행자가 나서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공공예절을 무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다음날 방송에서 그 청취자의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괜찮다고 양해해주었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진행자의 이러한 행동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이다. 10월2일 방송분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울림이 있을 정도로 소리 질러달라고 요구하고, 10월4일 방송분에서는 도로운전 중인 청취자와 대화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미션을 또 다시 부여했다. 10월 10일 방송분에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청취자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비록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의 인터뷰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전화통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라디오에서 여러 청취자와 다양한 소통을 하려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러나 방송에서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하는 행동은 자극적인 방송으로 청취자의 얇은 재미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마치 몇몇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선정적이고 돌발적인 행동까지 하는 메커니즘이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첫 방송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선되어 이 프로그램이 보다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혜란 라디오본부장 : 먼저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작진은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전해주기 위해 장성규라는 진행자를 선택하였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서는 처음으로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를 매일 생방송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처음 진행하는 DJ가 매일 생방송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선을 넘는’ 캐릭터의 장성규 진행자가 2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말조심을 할까, 사고치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 새 프로그램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진행자의 진솔한 모습과 선을 넘지 않는 조심스러운 행보에 다수의 청취자들은 ‘유튜브나 예능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아니냐’, ‘약간의 선은 넘어 달라’라는 의견을 보일 정도였습니다(문자와 미니 메시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단, 장성규 진행자가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약간의 말실수(특정 상호 언급 등)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등을 청취자에게 미션으로 준 적이 있어서, 곧바로 사과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작진 및 진행자가 함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작진들은 매일 매일 코너 및 세부사항들을 회의를 거쳐 조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만 매일 매일 라디오 청취자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라디오를 매우 사랑하는 진행자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가는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희 위원 : 파일럿 프로그램 <신기루 식당>, 단 하루만 열리는 신기루 같은 마법의 공간이란다. 식재료는 모두 인근에서 채취했고 상차림도 자연의

수확물로 꾸몄다. 강원도 인제 산속이라는데 마치 멀고 먼 다른 세상 같았다. 한식과 서양식을 합한 자연친화적인 요리에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했다. 결이 다르다고 할까? 그간 MBC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림이 아닌가. 난무하는 먹방, 쿡방에 질릴 대로 질린 시청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미슐랭 스타 셰프와 전통주 소믈리에, 그리고 박준형, 정유미, 라비가 자연주의 팝업 식당을 함께 열었는데 출연진 구성이 아쉬웠다. 외국인 출연자들과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한 섭외이지 싶지만 일단 박준형은 프로그램 정서와 맞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수선스러움이 <신기루 식당>에서는 방해요소였다. 늘 그렇듯 구색 맞추기처럼 여성 출연자가 단 한 사람인 것도 아쉬웠다.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여고생 은단오(김혜윤 분)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을 이뤄내는 본격 학원로맨스 드라마로 웹툰 원작 '어쩌다 발견한 7월'이 기반이다. 배경이 만화 속 세상, 이종석의 <W>처럼 주인공들이 만화와 현실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화, 그것도 순정만화다. 첫 회에 은단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당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은단오가 교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급식을 먹는 장면으로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양호실에 누워 있다가, 만화 속 세상은 현실처럼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하나의 상황으로 확실히 넘어가지 않나. “우리가 있는 세계는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이야.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쉼도우라고 불리는 스테이지 밖에서는 자유로워. 지금 우리처럼.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던 우리 작가가 그린 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고 이를 운명이라고 하지”라고 역시 자아를 가진 캐릭터 '진미채'가 단오에게 설명해준다.

만화 안에서 메인 줄거리가 전개되고 있을 때 그 밖의 인물들은 쉼도우라는 스테이지에서 각자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메인으로 느닷없이 소환되는 것이다. 색다른 발상이다. 은단오는 사실 주인공들을 엮어주는 데에 필요한 인물, 뭘 전해준다거나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다거나, 따라서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것. 은단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화작가가 정해놓은 콘티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진호 콘텐츠협력2부장 : 시청자위원님의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신기루 식당>은 파인다이닝을 통해 새로운 음식문화를 소개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식당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부터 식재료 채집, 식사준비, 요리, 손님접대 전 과정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음식을 소개받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크루들을 일반인들과 편하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섭외했습니다. 박준형 씨는 다양한 연령대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손님들이 유쾌한 기분을 느끼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조금 과한 행동과 말이 부담되었다면 편집상 조금 줄여서 매력을 더 잘 살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조셉과 더스틴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을 발견하며 출발해 남성 출연자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크루들을 기준으로 보면 남녀 2:1로 구성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여성 출연자가 적었다는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건상 불가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드라마부국장 : 애정 어린 평가와 칭찬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다소 어려운 세계관이라는 드라마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과 제작이 그만큼 어려웠고 더 많은 공이 들어간 작품이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러 설정들에 대해 낯설다는 느낌보다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평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원물의 풋풋한 정서와 함께 순정만화 속 엑스트라들이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흥미롭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성재 위원 : 10월 의견서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을 중심으로 방송 전반에 대한 세대 간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한다.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가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일요 예능 1위, 주간 전체 예능 1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시각, 자식의 시각, 선배의 시각, 후배의 시각 등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비춰주면서 본래의 색을 잃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특히 X세대와 Y세대의 소통방식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 Y세대는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30대 중반 정도로 볼 수 있다. X세대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마흔이 된 1980년대 이전 세대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이에 두 세대가 보이는 큰 차이를 정리해보자.

‘보상’에서 X세대는 장기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Y세대는 즉각적 보상을 원한다. ‘자유 시간’은 X세대는 단체 회식문화를 원하지만, Y세대는 개별 자유 시간을 선호하고, ‘평가 및 결과’에서 X세대

는 평가지표와 결과에 주목하지만 Y세대는 공정한 프로세스에 주목한다. ‘교육기획’ 부분에서 X세대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몫으로 생각하는 반면 Y세대는 조직 안팎에서 배우길 원한다. ‘조직에서의 정체성’에서는 X세대는 좋은 조직에 속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Y세대는 조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을 원한다. ‘피드백’도 X세대는 조직 구성원 앞에서, Y세대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예능을 비롯한 많은 방송에서도 X세대와 Y세대가 주축으로 파트너를 이루어 방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보다 중심이 되는 X세대가 원하는 보상, 평가, 피드백으로 전체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 그러나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보다 주도권을 가진 X세대가 Y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또 이와 같은 노력은 Y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어렵게 들어간 고연봉의 직장을 Y세대는 문자 한통으로 퇴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X세대는 근성 없고 예의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방송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대 간의 다른 소통 방식으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 MBC 예능에서는 이와 같은 다른 세대의 소통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가면 좋겠다.

권석 예능본부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세대 간의 갭(GAP)은 예능의 좋은 소재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 이전에도 본사에서 방송됐던 <세바퀴>도 주니어 연예인과 시니어 연예인들의 세대 차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대 차이에 대한 관심과 또 이로 인한 갈등은 요즘 들어 더 높아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90년대 생이 온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이 그 방증입니다. 위원님의 제안을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PD와 공유했습니다. 세대 간의 서로 공감하고 벽을 허무는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으로 결실이 맺어지도록 옆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윤미현 시청자심의국장 : 시청자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피드백과 조치사항입니다. 박성현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00분토론>을 사안에 따라서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이름은 <100분토론>인데 편성시간은 80분이고 실제로는 70분밖에 안 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100분토론> 20주년특집으로 10월22일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시간도 8시55분부터 11시까지 125분, 알맹이만 100분 넘게 방송하였습니다. 20주년특집 <100분토론>은 유시민, 홍준표 두 사람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2부는 시청률이 무려

9.6%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윤여진 위원님께서 방송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상길 위원님도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지난 9월에 의견 주셨습니다.

라디오본부에서는 이번 가을 개편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15분 늘려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7시5분부터 8시30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경란 위원님께서 <놀면 뭐하니?>의 '릴레이 카메라'가 제작진에게는 새로울지 모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지도 않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놀면 뭐하니?>가 지상파 텔레비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감과 공명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릴레이카메라', '조의 아파트' 등 그동안 여러 시도를 해왔는데, 최근 '유프래쉬'와 '뽕포유'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의 2049시청률이 3%가 넘으면서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2049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유프래쉬'와 '뽕포유' 성과에 힘입어 3분기 MBC프로그램상 으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놀면 뭐하니?>가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데스크>의 논문 1저자 전수조사 보도가 좋았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후속보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박성현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의견 주셨습니다. 보도국에서는 '고교생 논문저자,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타이틀 아래 10월15일부터 시리즈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뛰어나. 딸과 추억 만들려고.' '옆에서 구경만 해도 4저자, 솔직히 뭘 했는지.' '4저자는 동료교수 아들 그들만의 상부상조' 등의 꼭지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소식입니다. 10월 셋째 주(10월14일~20일)에는 MBC프로그램이 2049시청률 TOP20에 7개나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TV화제성 부문에서도 MBC의 여섯 개 프로그램이 화제성TOP20에 랭크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복면가왕>, <라디오스타>뿐 아니라 <놀면 뭐하니?>와 <PD수첩>도 함께 화제성 TOP20에 랭크되었습니다. MBC채널의 화제성 점유율이 23.17%로 비드라마 부문 방송사 화제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경우, 1020 시청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드라마부문 화제성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웨이브의 주간 조회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SMR클럽에서도 클럽당 1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젊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허일후 아나운서가 <기억.록>에 참여했습니다. 허일후 아나운서는 <기억.록>에서 언론인 리영희 선생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시청자고충처리상황은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시간에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